

현대 패션에 나타난 남성복 스타일 특성에 관한 연구 -메트로섹슈얼 현상을 중심으로-

이 언영⁺ · 변미연^{*} · 이인성^{**}

수원여자대학 패션 코디네이션학과 겸임교수⁺

원광대학교 패션디자인 산업전공 강사^{*}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부교수^{**}

A Study for the Characteristics of Men' Costume Style on Contemporary Fashion - Focusing on Metrosexual Phenomena -

Un-Young Lee⁺ · Mi-Yeon Byun^{*} · In-Seong Lee^{**}

Concurrent Prof., Dept. of Fashion and Coordination, Suwon Women's College⁺

Lecturer, Dept. Fashion Design Industry, Wonkwang University^{*}

Assistant Prof.,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2006. 7. 24. 접수; 8. 17. 채택)

Abstract

Metro-Sexual is one of the most representing case showing contemporary life style of men that rooted into public already. The fundamental feature of this Metro-Sexual is the conversion of men's costume style to womaness which also could be seen from the history of clothes.

The former works about sexual image, expression of sexual identity, androgynous and borderless phenomenon have been referred as base of this work. To analyze Metro-Sexual in modern social/cultural factors through such existing works will be critical part of understanding entire fashion trend in this day beyond sexual limit.

As research method, former works, references, various fashion magazines and fashion related sites was used to grasp conception and womanity of Metro-Sexual. In a limited time interval from 2001~2006 for practical work, silhouette, detail, trimming, colors, items, patterns and accessories were analyzed selected from famous S/S, F/W men's fashion collection magazine and internet site of professional fashion institute.

It is obvious that Metro-Sexual already spread out in men's fashion based on such social/cultural background as new century's icon that regarded as critical factor in researching contemporary men's fashion and of the future.

Key Words: Metro-sexual (메트로 섹슈얼), Men's costume style (남성복 스타일),
Men's fashion (남성 패션), Womanity (여성화)

⁺Corresponding author ; Un-Young Lee

Tel. +82-10-3131-7804, Fax. +82-31-302-0210

E-mail : beaute210@hanmail.net

I. 서 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현대 사회가 다양화·다원화 되어감에 따라 현대패션은 다양한 예술양식이 혼재된 양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예술양식 뿐만 아니라 서로 상반되는 사물이나 현상, 다양한 개념들이 이원론적인 독립구조에서 서로 탈피하여 서로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통합되어가는 탈 장르화 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는 곧 기존의 개념을 부정하고 전통을 배제하거나 파괴하기 위한 새로운 실험정신이 돋보이는 디자인으로 나타나 현대패션을 리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현대패션에 나타난 메트로섹슈얼은 현대 남성의 라이프스타일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며 문화이다. 이러한 메트로섹슈얼의 근본적인 속성은 남성의 여성화 현상으로 과거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는 근세시대 남성들의 과도한 장식 및 여성화 경향을 들 수 있다. 또한 1960대에 들어와 유니섹스(unisex), 앤드로지너스(androgyinous), 젠더리스(genderless)의 확산은 남성복이 여성화되는 것을 가속화 시켰다. 하지만, 외형적 현상에만 특징되어지는 과거의 유래와는 달리 현대의 메트로섹슈얼 현상은 가치관과 남성들의 문화적 특징이 반영되었다는 특징을 지닌다.

최근 남성패션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남성복에 표현된 성적 이미지(이민선, 1999), 성 정체성의 표현양상(채수진·김혜연, 2001), 앤드로지너스에 관한 연구와 남성복식에 나타난 Boderless현상(김병옥, 2003) 등 남성복의 여성화에 대한 현상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문화적 배경속의 메트로섹슈얼의 현상을 파악하고 현대 남성패션의 변화요인을 분석하는데 있으며, 이는 패션 트렌드 현상인 혼성패션문화를 재조명하고 패션에서의 성에 따른 표현양식을 알아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남성대중의 니즈를 파악하고 현대 남성복 변화양상을 예측하여 새로운 디자인 모색에 그 의의가 있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 분석, 각종 패션신문 및 문화 평론가들의 글을 중심으로 이론적 연구를 하여 메트로섹슈얼의 개념을 정리한 후, 메트로섹슈얼의 흐름과 배경을 고찰하며, 실증적 연구로 2001년 S/S부터 2006년 S/S까지의 컬렉션과 패션 전문기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시하는 남성패션의 이미지를 선별하여 디자인 특징과 상징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메트로섹슈얼의 개념

메트로섹슈얼(Metrosexual)의 사전적 의미는 ‘대도시·중심지·수도’(Metropolis)와 ‘성·성에 관한·성적인’(sexual)의 합성어로 대도시에서 생활하는 새로운 성을 의미한다¹⁾. 이 단어는 영국의 문화 비평가 마크 심슨(Mark Simson)이 1994년 일간지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지에 기고한 글에서 처음 등장한 신조어로서 외모를 중시하는 젊은 남자들의 새로운 변화를 빗대어 사용한 것이다. 그는 메트로섹슈얼을 ‘영화·광고·잡지에서 보여지는 나르시시스(narcissist) 적이고 불안한 남성다움’으로 표현하였다²⁾. 그 이후 이 단어는 옵저버(The Observer), 헤럴드(The Herald), 맥클린(Maclean's magazine)과 같은 잡지들을 통해 퍼져나가 스타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진 남자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자리 잡았다.

현대 영국의 축구 선수 데이비드 베컴(David Birkham)은 체격이 권장하고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며, 헤어스타일과 피부를 관리하는 등 메트로섹슈얼의 전형으로 꼽힌다. 우리나라에서도 축구 선수 안정환, 탈렌트 권상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여성적인 면을 다양하고 과감하게 표출한 이들을 겨냥해 화장품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남성의 의류에서도 소재와 색상, 디자인에서 남성복이지만 여성들이 입어도 될 정도로 우아하고 섬세한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다³⁾.

이처럼 메트로섹슈얼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여성스럽게 변화된 남성상은 영화·방송·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해 더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도 빠르게 퍼져나가 ‘꽃 미남’이라는 사회풍조를 대중화시켰다. 따라서 메트로섹슈얼은 전 세계적인 패션 트랜드일 뿐만이 아니라 21세기 문화현상을 대변하는 키워드이다.

2. 메트로섹슈얼 현상의 배경

1) 문화적 요인

복합적 다원주의를 추구하는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가장 특징적 문화 현상인 포스트모더니즘은 남성우월주의 대 여성차별주의, 현대 대 과거 등과 같은 대립개념들이 해체하고 서로의 특징을 수용하고 통합함으로써 함께 공존하는 새로운 의미로 재구성되어졌다. 이는 과거의 고정된 관념을 깨뜨리고 현대의 개성화·다양화 추세에 따라 남성적 이미지 요소와 여성적 이미지 요소를 혼합하여 동시에 표출하는 양성적 이미지로 표현하게 되었다⁴⁾. 특히 최근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성의 혼란, 기준가치의 붕괴, 새로운 관념들의 정립과 같은 과도기적 상황은 인간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성 정체성의 혼란은 세기말의 불안한 심리와 사회 정치적 남녀 역할 변화 추이에 따른 것으로, 특히 남성의 여성화 경향은 현대인의 의식과 생활방식, 영화, 광고, 예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⁵⁾. 또한 성의 개념의 변화로 미의 개념에 대한 사고방식도 변화되었는데 다원적인 성을 수용하는 자세로 인하여 다양한 미의식의 표현이 과거 여성 패션에서 볼 수 있었던 부드럽고, 화려한 새로운 스타일의 남성 패션을 형성하게 되었다.

2) 사회적 요인

1990년대 이후의 산업 발전에 따라 고도의 과학 발달과 급속한 정보통신의 발달을 가져와 디지털 정보화 사회로 이행됨에 따라 정보의 고급화·다양화·보편화를 가져왔으며 글로벌화는

다양한 문화와 감성이 공존하는 다양성의 사회로 급격히 확산되었다⁶⁾. 이러한 변화는 현대인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의한 개성 추구 및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경향으로 전환되었고, 소비자의 내재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유로운 감성을 요구하는 전환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특히 최근 웰빙(Well-Being) 현상에 따라 현대인은 자기 자신의 건강과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남성들도 여성 못지않게 몸이나 얼굴 가꾸기로 스스로의 외관 이미지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남성의 여성적 성향의 광고나 방송매체에 나타난 폐미니스트적 사고를 현대 남성들은 쉽게 수용하여 패션의 새로운 현상들에 대해 더욱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이려는 변화된 남성의 라이프스타일이 형성되고 있다.

3) 경제적 요인

20세기부터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로 여성이 남성과 대등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으며, 여성이 경제력을 가지게 되어 남성이 가지고 있던 가부장제도의 의무감에서 해방되기 시작하였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변화에 과거의 가부장적 제도의 가정과 사회의 주도자였던 남성은 경제적 부담과 의무감이 줄어들고 시간적 여유가 생김에 따라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⁷⁾. 이러한 외적인 아름다움의 추구는 남성미의 의식변화로 이어져 예전의 근육으로 과장된 몸매에서 전체적으로 비례에 맞는 슬림한 몸, 희고 깨끗한 피부, 잘 정돈된 눈썹,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남성 이미지가 선호되고 있다.

이렇듯 메트로섹슈얼은 문화·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성 정체성의 혼란, 기준 가치관의 붕괴, 신체적 이상미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문화적 다원화, 개성 추구, 감성시대의 도래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다. 즉, 본래의 남성 기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여성적인 감성 코드를 다양하고 과감하게 표출하고자하여 자기 자신을 꾸미는데 시간과 돈을 과감히 투자하는 새로운

남성 이미지의 한 현상으로서, 현대 남성 패션 트랜드에 중심이 되고 있다.

III. 현대 패션에 나타난 메트로섹슈얼의 디자인 분석과 상징성

성적 정체감은 뚜렷하게 내면의 여성적인 취향과 감성을 당당하고 편안하게 수용하는 현대 남성 패션 현상인 메트로섹슈얼 특징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디자인 경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내적 의미인 상징성을 성의 해체성, 관능성, 절충성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디자인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컬렉션에 나타난 의상을 중심으로 외적표현을 분석하였다.

외적표현의 특징은 디자인의 요소인 형태, 소재, 색상으로 구분하였고, 형태는 실루엣, 디테일, 트리밍으로 소재는 질감과 문양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메트로 섹슈얼에 표현된 조형적 요소를 고찰하고자 한다.

1. 성의 해체성

성의 해체성이란 남녀의 이분법을 해체하여 여성적 이미지의 요소의 일부 혹은 전체를 남성 패션에 도입한 경우를 말한다.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인 이미지의 해체, 절충, 조합으로 재구성을 통하여 남성 안에 내재된 여성성이 메트로섹슈얼의 디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1) 형태

신체를 드러내는 피트 앤 슬림(Fit and Slim) 실루엣이나 밀위길이를 짧게 하고 하체에 피트감을 준 실루엣이 나타나고, 예전의 남성의 권위감을 나타내기 위한 부자재로 패드를 넣어 각지게 표현했던 어깨선은 부드럽게 곡선 처리되거나 어깨라인에 꼭 맞도록 짧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허리라인을 꼭 조이고, 밀위길이가 짧아져 허리 라인이 드러나며 골반에 걸치는 팬츠

의 형태도 많이 표현되어지고 있다. 팬츠의 통은 레깅스와 같은 좁은 일자 팬츠나 다소 헐렁하게 입는 배기 스타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세부적인 형태에서도 여성스런 이미지를 나타내는 프릴, 러플, 셔링, 드레이프 등의 디테일, 자수나 시퀸과 같은 트리밍이 셔츠와 재킷에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꽃을 모티브로 한 문양이나 자수 기법, 레이스 장식 또는 작은 금속 장식들로 화려한 광택이나 고급스러움을 연출할 수 있는 시퀸 기법 등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기존의 남성복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공예적인 오트쿠튀르 기법으로 보다 화려하고 여성적 감성을 표출하고 있다.

2) 색상

비비드 톤이나 고명도의 화려한 색상, 밝은 느낌을 주는 브라이트나 라이트 톤의 핑크, 블루, 그린, 옐로우 등이 주로 여성의류에서나 사용되는 부드럽고 밝은 이미지를 주는 색상이 남성 패션에서도 유행하였으며, 특히 남성 수트에 화이트나 핑크 등의 밝은 색상이 사용하되, 이너 웨어에 화려한 색상을 대조색이나 액센트색으로 연출하여 남성의 멋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3) 소재

신체의 곡선을 부드럽게 드러내주는 신축성 소재, 여성적 이미지의 꽃과 식물 문양 등을 사용하여 소프트한 질감과 어울리는 곡선적인 부드러움으로 여성적이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신체의 곡선을 부드럽게 드러내고 율동감은 물론 편안한 착용감과 가볍고 부드러움을 주는 니트, 그리고 신축성을 지닌 저지 소재, 쉬폰, 레이스, 실크 등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1>은 라이트 톤의 핑크색 수트로 각지지 않은 어깨선과 앞여밈의 밀단선 등이 곡선으로 처리되어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이미지를 표현하였고, <그림2>는 팬츠의 밀위길이를 여성의 골반팬츠와 같이 짧게 하고 폭도 피트하게 한 스커니 진으로 연출하였으며, 광택이 있는 블라



<그림1> Comme des Garcons 2005 f/w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2> D&G 2004 f/w
<http://www.modanews.com>



<그림3> Comme des Garcons 2005 f/w
<http://www.firstviewkorea.com>

우스 셔츠에 커다란 리본 디테일을 주어 여성스런 이미지를 부가시켰다.

<그림3>은 팬츠의 길이를 니랭스로 하여 다리를 그대로 드러내었고, 평크, 레드계열의 색상으로 표현한 유기적 곡선의 문양을 사용하여 율동감 있고 부드러운 여성의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2. 관능성

관능성이란 신체의 간접·직접적 노출을 통해 신체의 관능적 부위를 강조하고 인체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움직임에 따라 인체선이 드러나게 되어 시작적인 인지와 연상하는 심리작용을 일으키게 되고 이러한 성적 연상에 이르게 되는 관능적인 느낌을 메트로섹슈얼의 디자인에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1) 형태

여성적 이미지를 주는 실루엣으로 차용하여 피트 앤 슬림(Fit and Slim) 실루엣으로 인체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거나, 아워글래스(Houreglass) 실루엣으로 어깨 라인과 힙라인을 부드럽게 표현하고 허리한 강조한 스타일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클리비지룩(Cleavage Look)이 유행하면서 기존의 Y-셔츠에 넥타이를 매는 고정적인 형식에서 벗어났다.

이너웨어의 가슴선이 많이 파인 형태가 등장

하여 시원한 목선과 가슴선을 드러내고 있으며,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부정한 주름인 드레이프과 카울 네크라인 등이 나타났다. 또한 소맷부리나 재킷 밀단, 팬츠 등에 좁고 긴 트임을 주어 신체의 일부를 드러나도록 하는 슬릿 표현도 많았다.

2) 색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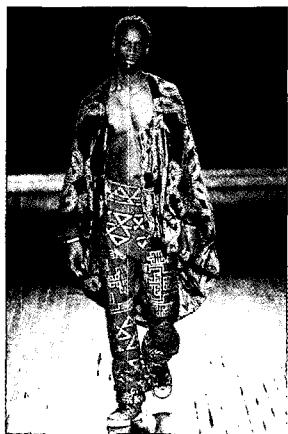
여성의 부드럽고 밝은 이미지 외에도 섹시함을 잘 표현해 주는 블랙, 골드, 퍼플, 와인, 레드 색상이 남성복에 유행되고 있다. 특히 골드나 퍼플 등의 색상은 한 아이템 혹은 의상 전체에 사용되어 기존의 강한 남성 이미지가 아닌 밝고 화려하며 서비스러운 스타일을 연출하고 있다.

3) 소재

남성들의 의식변화에 따라 남성복에서 터부시 되었던 한 부분인 신체표현이 자유로워졌다. 자신을 매력적으로 보이길 원하는 욕망과 이것을 보고자하는 욕망이 자유롭게 표출된 비쳐 보이는 얇거나 짜임이 성근 질감을 지닌 트랜스페어런트 소재 등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트랜스페어런트 소재인 쉬폰이나 오간자, 레이스 등은 과거 여성적 이미지의 섬세함과 화려함을 대표하는 소재로서 남성의 섹시함과 감각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꽃문양이



<그림4> John Galliano 2005 f/w
<http://www.modanews.com>



<그림5> Bernhard willhelm Men 2005 f/w
<http://www.modanews.com>



<그림6> Calvin Klein 2005 s/s
<http://www.firstviewkorea.com>

나 추상적인 문양으로 관능적인 표현을 연출하였다.

<그림4>는 트렌스페어런트의 소재의 가슴을 드러낸 이너웨어가 섹시함을 표현하며, 허리에 벨트 대신 커다란 술이 달린 와인색의 벨벳 스카프로 플러스 원(Plus-One) 코디네이션 하였다. <그림5>는 투즈한 상의가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형태이며, 가슴선을 여과없이 드러내어 남성의 관능성을 표현하였고, 추상적인 문양과 기하학적인 문양을 골드색상으로 패턴 온 패턴 (Pattern on Pattern) 코디네이션 하여 블랙과 골드 색상의 배색을 통해 화려함을 나타냈다. <그림6>은 피트 앤 슬림 실루엣으로 슬림한 신체를 드러내고 있으며, 속살이 살짝 비치는 짜임이 성긴 실크 소재의 셔츠로 신체의 일부를 드러내고 있다.

3. 절충성

절충성이란 형태나 소재 등 디자인 요소 중에서 서로 이질적 요소를 도입하여 조화시키는 것으로 부조화스러운 대상이나 이미지의 병치, 전통과 현대적인 의복 디자인의 결합, 질감이나 문양에 따른 이질적인 소재의 사용을 들 수 있다. 또한 하위문화와 고급문화의 조화로서 이는 문화의 경계를 해체하고 각각의 요소를 혼성·도치하여 독특하고 풍부한 표현과 애매성의 강조

된 표현, 여성적 이미지와 남성적 이미지의 혼합으로 다양하게 메트로섹슈얼의 디자인이 표현되고 있다.

1)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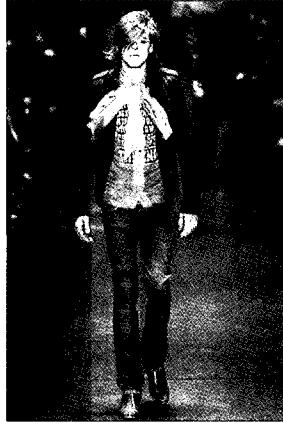
어깨라인과 힙 라인을 부드럽게 표현하고 허리한 강조한 스타일이 아워글래스(Houreglass) 실루엣, 어깨라인은 기존의 각진 라인으로 하되 허리와 하체 부분을 피트하게 연출하는 역삼각형 실루엣이나 그 반대인 삼각형 형태의 텐트(Tent) 실루엣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여성적인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프릴이나 셔링, 리본 등의 디테일과 트리밍 장식이 절제있게 일부에만 표현되었다.

2) 색상

고정되거나 특별한 형식 없이 다양한 톤의 다양한 색상으로 연출된다. 또한 기존의 무채색인 텔 톤, 다크 톤의 남성적인 탁한 색상들과 브레이트 톤, 라이트 톤, 비비드 톤 등의 색상들이 규제 없이 혼용되기도 하고, 3~4가지 이상의 다양한 색상이 톤을 기준으로 배색되는 톤 인 톤 (Tone in Tone) 배색법도 많이 표현되어졌다.



<그림7> John Galliano 2005 f/w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8> Dior Homme 2004 s/s
<http://www.modanews.com>



<그림9> Duckie Brown 2006 f/w
<http://www.modanews.com>

3) 소재

하드한 느낌의 가죽과 그와 반대되는 쉬폰이나 실크 등의 소프트한 소재의 혼용과 같이 대조적이고 이질적인 다양한 느낌의 소재가 함께 연출되어졌다. 또한 문양도 스트라이프나 체크와 같은 남성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기하학적인 문양과 꽃문양, 도트 문양 등의 부드러운 느낌의 문양의 패턴 온 패턴(Pattern on Pattern)이나 전통적인 문양과 현대적 또는 미래적인 느낌의 문양 등을 배합하여 새롭게 재구성되어졌다.

<그림7>은 비대칭 실루엣의 스커트와 재킷 위의 망토가 비대칭라인으로 연출되었고, 상의의 무채색과 하의의 비비드톤의 색상과의 배색,

상의의 직선 문양과 하의의 곡선의 이질적인 문양을 혼용하여 독특하게 표현하였다. <그림8>은 피트 앤 슬림 실루엣으로 꽉 끼는 재킷과 팬츠로 표현되었으며, 진과 가죽의 남성적 이미지의 소재를 사용한 팬츠와 재킷에 넥타이 대신 소프트한 질감의 스카프로 리본 장식을 하여 여성적인 요소를 일부 첨가 시켜 이질적 소재코디네이션을 연출하였다. <그림9>는 각진 어깨의 재킷과 와이셔츠, 넥타이의 전형적인 남성복 아이템의 구성이나 브라이트 톤의 엘로우, 오렌지, 평크, 퍼플 색상을 사용하여 기존의 탁하고 딱딱한 남성적 이미지를 탈피하였다.

<표1> 디자인적 특징과 의미

상징성	현대 패션에 나타나 메트로섹슈얼 디자인 특징		
	형태	색상	소재
성의 해체성	피트 앤 슬림 실루엣 프릴, 셔링, 러플, 자수	비비드, 브라이트, 라이트 톤의 평크, 블루, 그린, 엘로우	쉬폰, 저지, 레이스, 실크 꽃문양, 식물문양, 곡선
관능성	피트 앤 슬림, 아워 글라스 실루엣 오픈 형 가슴라인, 슬릿	블랙, 골드, 퍼플, 와인, 레드	시스루, 쉬폰, 오간자, 레이스 꽃문양, 추상적인 문양
절충성	아워글라스, 역삼각, 텐트 실루엣 절제있는 디테일, 트리밍 사용	다양한 톤과 다양한 색상 사용 고정된 배색 형식 없음	대조적, 이질적 소재와 문양 혼용 꽃문양 + 체크 문양 가죽 + 쉬폰

IV. 결 론

현대 패션은 다양한 예술양식이 혼재된 양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예술양식 뿐만 아니라 서로 상반되는 사물이나 현상, 다양한 개념들이 이원론적인 독립구조에서 서로 탈피하여 서로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통합되어가는 탈 장르화 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곧 기존의 개념을 부정하고 전통을 배제하거나 파괴하기 위한 새로운 실험정신이 돋보이는 디자인이 현대패션을 리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이분법적 구분을 부정함으로써 성의 혼돈과 성의 부재를 표현하였고, 서로 상이한 요소들을 절충, 조화시킴으써 최근 부각되고 있는 메트로섹슈얼 현상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대 남성패션 디자인의 메트로섹슈얼 특징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메트로섹슈얼 디자인 경향을 바탕으로 상징성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디자인 특징을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현대 남성패션에 나타난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의 의미를 재해석해 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메트로섹슈얼이라는 남성이라는 성적 정체감은 뚜렷하면서 내면의 여성적인 감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적인 관계보다 자기중심주의 성향이 강하여 자신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남성들이 선호하는 이미지가 함축되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패션 디자인 측면에서의 메트로섹슈얼은 성 정체성의 혼란, 기존 가치관의 붕괴,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문화적 다원화 개성추구, 감성시대로의 도래로 인해 남성적인 기질을 안에 내재된 여성적인 감성을 다양하고 과감하게 표출하기 위해서 메트로섹슈얼이라는 새로운 남성 이미지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메트로섹슈얼에 나타난 디자인의 경향을 바탕으로 내적의미인 상징성을 유추해보면 성의 해체성, 관능성, 절충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성의 해체성이란 남녀의 이분법을 해체하여 여성적 이미지의 요소의 일부 혹은 전체를 남성 패션에 도입한 경우

로서 여성적인 이미지 요소를 첨가하여 피트 앤 슬림(Fit and Slim) 실루엣과 프릴, 셔링 등의 디테일, 자수, 시퀸의 트리밍으로 표현하였으며, 꽃문양, 식물 문양과 같은 여성적인 감각의 문양과 비비드 톤과 브라이트 톤의 옐로우, 블루, 그린, 핑크 등으로 화려하고 밝은 색상으로 메트로섹슈얼을 연출하였다.

둘째, 관능성이란 신체의 간접·직접적 노출을 통해 신체의 관능적 부위를 강조하고 인체미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클리비지 스타일에서 영향을 받아 비쳐 보이는 쉬폰, 망사, 레이스 등의 트랜스 페어런트 소재를 이용한 디자인, 무봉제 팬티, 드로어즈 등과 블랙, 골드, 퍼플, 와인, 레드 색상으로 연출하였다.

셋째, 절충성이란 형태나 소재 등 디자인 요소 중에서 서로 이질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조화시키는 것으로 부조화스러운 대상이나 이미지의 병치, 전통과 현대적인 패션 디자인의 결합, 질감이나 문양에 따른 이질적인 소재와 하위문화와 고급문화의 조화 등을 들 수 있는데, 고정된 형태나 색상, 소재 구분 없이 가죽과 쉬폰, 꽃문양과 체크 문양의 혼용 등 대조적이고 이질적인 것들이 다양하고 독특하게 결합되어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어졌다.

본 연구에서 현대 패션에 나타난 메트로섹슈얼 현상을 살펴본 결과 이러한 현상은 사회·문화적인 현상과 맞물려 형성되어 시대에 따라 변화된 내적 특성인 상징성을 갖게 되고 그에 따른 외적 표현인 디자인의 특징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현대 남성 패션에서 메트로섹슈얼 현상은 남성의 여성화 현상인 위버섹슈얼(Uber Sexual), 크로스섹슈얼(Cross Sexual), 루키즘(Lookism) 현상 등과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는 미래의 남성복 변화 양상을 예측하고 분석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성의 얹매임에서 벗어나 인간의 자유로운 감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현상으로서 앞으로도 사회·문화적인 현상에 따라 다양한 미의 가치를 갖게 되고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재해석 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현대 남성 패션 트랜드와 실제 남성들의 선호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현대 남성들의 감성을 분석하는 보다 심도 있는 디자인의 특성 연구와 그에 따른 다양한 디자인을 제시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참 고 문 헌

- 1) 중앙일보. 1995년 2월 3일.
- 2) 김윤경 (2003). 패션 트렌드 분석을 통한 남성패션 스타일의 변화 모형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
- 3) <http://100.naver.com> (네이버 백과사전)
- 4) 박옥련, 이현지 (2004). 1990년대 이후 국내 남성복의 여성화 경향. *한국의류학회지* 28(2), p.365.
- 5) 권기영 (2002). 복식에 나타난 양성성의 상징적 의미 연구. *복식문화연구* 10(6), p.634.
- 6) 이경옥 (2002). 21세기 Fashion market의 변화 와 소재의 방향. *섬유기술과 산업* I(4), pp.415-457.
- 7) 박옥련, 이현지 (2004). Op. cit., p.306.
- 8) 이민선 (1999). 남성패션에 표현된 성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19세기 중반 이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3(6), pp.776-787.
- 9) 채수진, 김혜연 (1999). 폐미니즘적 시각에서 본 현대복식의 앤드로지너스 현상에 관한 연구. *복식* 4(6), pp.203-224.
- 10) 김병옥 (2003). 현대 남성복식에 나타난 Borderless 현상에 관한 연구. 동명정보대학 석사학위논문.